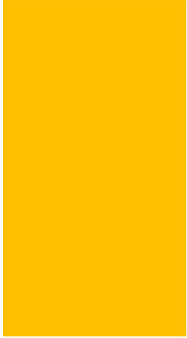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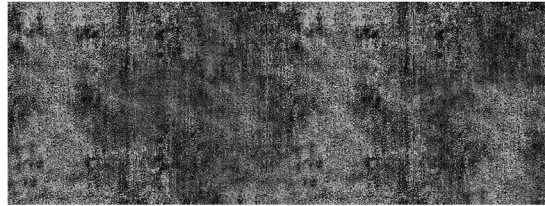


한대련



파헤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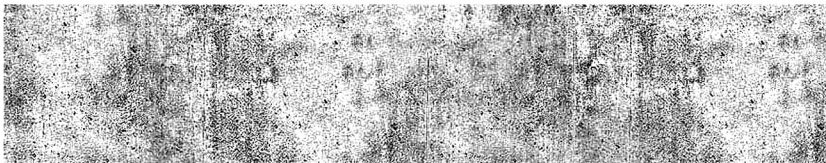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홍보 책자



총학생회장이 드리는 말

학우 여러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어떠한 단체여야 할까요?

저는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권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라 생각합니다.

총학이라는 대표를 뽑아놓은 것은 학우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 애쓰고, 학우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고려대 제 42대 총학생회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대련)'에 가입하면서 우리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라, 한대련을 위한 총학생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이 유지된 상태로 해를 보내다 2011년 제 44대 총학생회는 재가입 절차 없이 한대련 활동을 재개했고, 한대련이라는 조직의 하위단체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제 45대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으나 여전히 한대련의 가입단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한대련 탈퇴 자료집을 잘 읽어보시고, 곧 시행할 한대련 탈퇴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 고려대 학생사회를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제 45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장 박종찬



목 차

1

한대련 탈퇴 정책 투표에 부쳐

p.3

2

한대련이란?

p.4 ~ p.9

3

고대에서의 한대련

p.9 ~ p. 10

4

한대련 탈퇴 찬성 근거

p.11 ~ p. 15

5

한대련 탈퇴 반대 근거

p.15 ~ p. 19

6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p.19

1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에 부처

제45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 총투표를 제1공약에 걸고 당선되었다. 학생총투표에는 '총투표'와 '정책투표'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총투표가 가지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투표방식을 '정책투표'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학우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1. 총투표는 투표 결과 자체가 총학생회의 결정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는 최고의사결정방식이며 정책투표는 투표 결과 자체는 의결권(효력)이 없지만 총학생회가 그 결과를 따라야하는 강제성이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4장 학생총투표

26조 (정책투표)

1항

본회는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을 위해 정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정책투표는 회원 180인 이상, 중앙운영위원 1/5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주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3항

정책투표는 중앙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며, 온라인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4항

회원 1/10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정책투표의 결정은 총학생회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

학생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대부분의 학우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총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총학생회의 결정 과정에서 총학생회 독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일 경우 정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고대 선배들이 회칙을 만들때 총투표 이외에 정책투표라는 방식을 함께 넣어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2. 총투표의 경우 정회원의 50%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책투표는 10% 제한)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여러 선본이 출마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투표율은 5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난 2010년 소통시대 총학생회 사찰 사태로 인한 총학생회장단 탄핵 투표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많은 학우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50%를 넘기지 못하여 탄핵 무산이 되고 말았다. 한대련의 폐해를 겪어보지 못한 새내기들이 유권

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대련 탈퇴 총투표의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3. 한대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는 것이 한대련 탈퇴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대련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학우들이 많고 당해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다. 총투표를 진행했을 경우 한대련을 알지 못하는 학우들의 투표참여는 저조할 것이 예상되며, 투표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대련 탈퇴의 명분 중 하나가 오히려 탈퇴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한대련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학우들이 바로 한대련 탈퇴 투표에 참여해야하는 당사자라 볼 때 그들의 의지가 투표를 미만으로 사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투표가 적합하다.

4. 총투표는 의제 설정에 따라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한대련 '탈퇴' 총투표가 아니라 한대련 '가입 유지 재신임' 총투표라고 의제를 설정할 경우, 한대련 탈퇴를 반대하는 학우외에는 투표참여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투표율 저조로 인한 투표 무산은 가입 유지 재신임 실패로 이어져 더 이상 가입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투표율 50%제한이라는 규정 때문에 야기되는 '꼼수'라 볼 수 있다.

5. 총학생회직상 총학생회 단독 발의로 총투표나 정책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시에 가능하다'라는 부차적인 조건이 있다. 작년 총학생회는 이러한 '긴급사유'를 남발하였다는 비판을 들었다. 고대공감대는 중운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거쳐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중운위원들의 표결로 2학기 정책투표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09년 고대 총학의 한대련가입은 설문조사+전학대회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고대공감대는 설문조사+정책투표+전학대회의 방법으로 확실하고 깔끔하게 탈퇴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전 총학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이자 목표이다.

6.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 공약의 핵심은 "[한대련 탈퇴]를 [학우들의 손]으로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책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학우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학대회를 통해 한대련 탈퇴를 이루어낸다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고대공감대의 제1공약은 온당히 실현되는 것이다. 한대련 탈퇴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어떠한 총학생회가 당선되더라도 한대련 활동 재개시 '가입'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학우들을 위해 움직여야하는 총학생회이다. 한대련을 위해 움직이는 총학생회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며, 훗날 재가입 과정을 겪을 때 2012년 한대련 탈퇴가 의미있는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2

한대련이란?

한대련이란?

한대련의 공식명칭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으로, 2002년 10월 동아대의 발의로 시작하여 2005년 4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올해로 8기째를 맞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가입 단위 수는 한대련 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활동의 주요 목표는 등록금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대학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공동 행동이 있다. 이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등록금 문제를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8년도에 500여개의 시민 단체들이 한대련과 함께 등록금 네트워크를 만들어 등록금 이슈가 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되었고 2010년도에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다. ICL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이 일부 유지된 것이 성과인 반면에 B학점의 기준 제한, 군 복무자 피해, 복리와 5.8%라는 고이자율이 한계로 지적된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과 과도한 등록금 인상액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지만, 등록금 ‘금액’ 상한제가 아닌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학들에 ‘법이 정한 상한선 이하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대련은 등록금 시위 중 반MB, 한미 FTA 반대 피켓을 사용했던 일과 김정일 사망 추모 성명 발표, 서해 해군 훈련 반대, 천안함 사태 당시 정부를 의심하는 논평 발표 등 대학생들 모두의 목소리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편향적인 정치적 색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심화시킬만한 내용이 한대련 상반기 평가보고서 중 과제 부분에 실려 있는데,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단체의 과제 치고는 정치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또 다른 과제인 ‘대선의 승리를 위해 각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승리’는 한대련이 과연 대선을 위한 학생회를 만드려는 것인지, 대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드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2009년 전학대회를 통해 한대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대련 가입 전학대회 인준 이전에 재학생 100명의 설문 결과 52명의 학우들이 한대련이라는 단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할만큼 학우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한대련 활동을 하느라 학생복지에 소홀했다는 문제, 한대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문제, 한대련 회비 납입 사실이 가입 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 등으로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¹⁾ 2011

년 제44대 총학생회가 학내 문제보다는 한대련 활동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한대련 강령

1. 우리는 학문의 탐구와 연구를 통해 실천하는 지성인의 자질을 키우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학의 책임을 높이며, 대학 내에 건전한 대학문화를 꽃피운다.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천하는 지성인인 대학생의 기본사명이다.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역군임을 주체적인 자세로 자각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학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이다. 우리는 대학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주적인 대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학에서 건전한 대학문화를 꽃피우는 것은 우리의 기본 역할이다. 우리는 물질만능 풍조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민족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진취적이며 민족적인 대학문화를 창달하며,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자주적인 대학문화를 이룩한다.

2. 우리는 대학생답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선다. 대학생답다는 것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대학생답게 항상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며 모두가 주인답게 사는 나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학생의 의무이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 양심, 정치활동,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종 비민주적인 행위 및 요소들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선다는 것은 대학생의 양심이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며, 부당한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 자체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고 대학생에게 주어진 시대의 책무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숭고한 염원과 화해의 공존이라는 세기사적 흐름에 맞게 남과 북이 만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여러 방면으로 실현하여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 통일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학생의 숙원이다.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발전시켜 자주와 번영을 실현하는 당당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세계의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것은 대학생의 당연한 도리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하여 전쟁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한다.

1) [집중취재] 한대련 가입, 인준된 그 이후, KUBS, 2009.4.11

4.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강화하고,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높이며, 각종 부문계열 조직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 공유로 학생회의 활동성을 향상시킨다.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학생회가 대림학생들의 대표기구로 대학생들의 학문, 사회참여, 생활 등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신장시키는 것은 올바른 대학생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신장시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민족의 역군으로서 주체적인 자세와 자주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며, 사회발전과 조국번영에 이바지하는 재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종 부문계열 조직들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우리는 수많은 부문계열 조직들이 대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 한대련 홈페이지)

한대련의 두 번째 강령 내용 중 ‘우리는 대학생답게 항상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고’ 라는 구절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 자체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영원이고 대학생에게 주어진 시대의 책무이다’ 라는 구절은 한대련이 진보적인 쪽으로 편향되어있지 않나하는 의견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올해 6월 8일 KUBS에서 진행된 한대련 탈퇴 찬반 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다. 토론 중 탈퇴 반대 측에서는 이 구절들만으로 정치적 색이 편향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퇴 찬성측은 강령 문구 자체는 문제없을지 모르나 이것을 명분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문제라고 했다. 한대련이 김정일 사망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조문단을 구성하려 했던 것, 서해 해군 훈련에 반대했던 것처럼 한대련의 활동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대련 탈퇴 찬성측은 주장했다.

한대련 규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규약

1장 총 칙

1조 (명칭)

- ① 본회의 명칭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이라 하고 약칭은 ‘한대련’ 이라 한다.
- ② 본회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21C, HANDAERYEON”이고 로마자 약자는 21C, “HDR”로 한다.
- ③ 본회는 명칭에 연도별 기수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본회의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구성)

본회는 전국중앙조직 및 각 지역(지구)조직, 총학생회 및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으로 구성된다.

2장 회원

4조 (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총학생회 및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으로 한다.
- ② 회원자격은 차기체계에 자동 승계된다.

5조 (가입)

- ① 본회의 가입은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단위로 한다. 단, 학교별 사정에 의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가입은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본회의 가입은 중앙 조직과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 ④ 본회의 가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절차가 완료된다.

6조 (탈퇴)

- ① 본회의 탈퇴는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단위로 한다. 단, 단과대학의 탈퇴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가입한 해당학교 단과대학에 한정한다.
- ② **본회의 탈퇴는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가입결정을 내렸던 의사결정기구에 준하거나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본회의 탈퇴는 중앙 조직과 각 지역 지구체계의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강령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규약이 정하는 본회의 직책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 본회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③ 본회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④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나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 ⑤ 본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⑥ 규약이 정하는 본회의 직책에 대한 탄핵권

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강령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①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 ②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
- ③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 ④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

중략

3장 대의기구

<1절 전체 학생 대의원회의>

9조 (지위)

전체 학생 대의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10조 (구성)

- ① 전학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본회의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2. 지역대련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3. 지구대련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4. 전문대 특별위원장
 5. 미건설 지역, 지구의 추진위원장 혹은 추진위 준비단장
 6. 각 학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7. 각 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직선으로 선출된 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포함.)
 8. 규약에 따라 선출된 본회의 중앙조직, 지역조직의 집행위원장
 9.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대표
 10. 지역, 지구 조직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부문계열 조직대표
 11. 비례직 대의원
- ② 대의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을 두어 정한다.

11조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본회의 강령과 규약을 제정 및 개정
- ② 본회의 의장과 특별기구 위원장 선출
- ③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④ 본회의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탄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⑤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⑥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12조 (소집 및 회기)

- ① 정기 전학대회는 1년에 1회로 확대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 ② 임시 전학대회는 의장, 중앙운영위원 1/3이상, 확운위원 1/4 이상,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전학대회의 회기는 72시간, 임시 전학대회의 회기는 48시간으로 한다. 단, 회기를 초과하여 전학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일에 한하여 참석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④ 정기 전학대회는 30일전, 임시 전학대회는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⑤ 대표선출을 위한 전학대회의 경우 2월 28일전에 소집해야 하며, 소집권한은 예외적으로 전기 의장이 가진다.

<2절 확대운영위원회>

13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본회의 의사결정기구이다.

14조 (구성)

확운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본회의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 ② 지역대련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 ③ 지구대련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 ④ 전문대 특별위원장
- ⑤ 미건설 지역, 지구의 추진위원장 혹은 추진위 준비단장
- ⑥ 각 학교 총학생회장
- ⑦ 총학생회장이 ①②③④⑤에 해당되는 학교의 부총학생회장
- ⑧ 규약에 따라 선출된 본회의 중앙조직, 지역조직의 중앙집행위원장
- ⑨ 전국적인 부문계열 조직 대표
- ⑩ 지역, 지구 조직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부문계열 조직대표

15조 (권한)

확운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 ② 정기 전학대회 소집 및 제반 사항 준비
- ③ 본회의 시기별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④ 본회의 중앙 집행간부 인준 및 탄핵

- ⑤ 본회의 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⑥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16조 (소집 및 회기)

- ① 정기 확운위는 1년에 2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한다.
- ② 임시 확운위는 의장, 중앙운영위원 1/3이상, 확운위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③ 확운위의 회기는 48시간으로 한다. 단, 정기 확운위의 경우 회기를 초과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참석 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④ 정기 확운위는 15일전, 임시 확운위는 1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절 중앙운영위원회>

17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본회의 상설 의사결정기구이다.

18조 (구성)

중운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본회의 의장 및 특별기구 위원장
- ② 지역대련 의장
- ③ 전문대 특별위원장
- ④ 미건설 지역의 추진위원장 혹은 추진위 준비단장

19조 (권한)

중운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리 및 운영
- ② 전학대회와 확운위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 ③ 임시 전학대회 제반 사항 준비
- ④ 본회의 분기별, 월별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⑤ 정기 확운위 소집
- ⑥ 확운위 제반 사항 준비
- ⑦ 본회의 중앙 집행간부 임명
- ⑧ 회원의 포상과 징계
- ⑨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총학생회,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의 가입 승인

20조 (소집)

- ① 정기 중운위는 1년에 12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중운위는 의장, 중운위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중운위는 5일전, 임시 중운위는 3일전에 공지해야 한다.

중략

시행세칙 4 - 회비

1조 (목적)

본 세칙은 회비의 징수와 운영을 위해 둔다.

2조 (구분)

- ① 정기회비는 각 단위 학교의 정기회비와 각 대의원 정기회비로 규정한다.
- ② 비정기적인 재정마련을 위한 특별회비와 참가회비를 둔다.

3조 (학교의 정기회비)

- ① **본회 소속인 각 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정기회비는 상/하반기 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전체 학생회비 총액에서 해당 학생회가 배정받은 금액 × 0.8%

- ②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

다. 단, 자료제출의 의무는 각 해당 학생회에 있다.

③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④ 당해 회기년도의 예산 편성에 따라 학운위에서 정기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정기회비는 각 지역, 지구조직의 책임 하에 일괄 납부할 책임을 가진다. 단, 학교의 상황에 따라 4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시기는 중운위에서 정한다.

한대련의 전학대회는 1년에 1회, 확대운영위원회는 1년에 2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한대련 활동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대학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련의장들까지만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대련 활동에 각 대학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민주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규약 중 회비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총학생회 예산의 0.8%를 한대련 회비로 지불해야 한다.' 는 대목이 그 원인이었는데, 당시 제42대 총학생회가 한대련 가입 당시에는 회비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비판이 가해지자 정태호 제42대 총학생회장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든지 활동 회비를 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회비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²⁾ 그러나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우들은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는 한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한대련 규약의 시행세칙에 한대련 가입 단체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엄연히 있다. 따라서 회비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대련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관련 이슈

① 통합진보당과 한대련

한대련 소속 대학생 상당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한대련측에서는 이 학생들의 당 활동이 한대련과는 연관이 없으며, 개인의 활동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어떤 한대련 소속 활동가는 통진당을 지지하고 가입하는 것은 정당 정치가 대학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 통진당의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고 말했다.³⁾ 그러나 한대련이 통합진보당의 당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을 뒷받침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2년 5월 12일 벌어진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이다. 사건 당시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폭력 사태에 주도 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는 정용필 한대련 의장과 한대련 집행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⁴⁾ 한대련 학생들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심상정 공동대표가 '강령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을 처리하자 통진당 당권과 당원들과 함께 단상으로 달려나가 막으려는 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통진당 당권과 인사들과 한대련 학생들의 모습에서 당권과와 한대련 측 학생들의 조직적인 연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한국대학생포럼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당시에 왜 한대련 핵심인사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가 없으며,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한대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⁵⁾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한대련 측에서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으며, 폭력 사태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대련의 주 세력인 '혁신 그룹' 인사들이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측근이라는 사실과 통합진보당 당권과의 자금줄로 알려진 'CNP전략그룹' (현 CNC)⁶⁾ 의 대표가 한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한대련이 주최한 '사상이 있는 문예 캠프'의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는 사실, 또 CNP전략그룹이 한대련 소속 대학들의 행사 주최를 주로 맡는 모습⁷⁾ 은 한대련과 통합진보당 당권과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통진당 폭력 사태 당시 사진 (출처 : news1)

② 전·의경 햄버거 사건

2012년 6월 8일 반값 등록금 시위 때 한대련 학생들은 연예인 김제동이 전의경 측에 기부하라며 한대련 측에 전달한 250만원으로 햄버거 70개를 구입했다. 해당 햄버거를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들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전·의경은 '군인' 과 같은 신분이어서 근무 중 음식물을 먹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달 과정 중 일부 한대련 학생들의 돌출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먹지도 못할 햄버거를 전달한 것이 전·의경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전·의경들이 그 상황에서 햄버거를 먹지 못할 것은 뻔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 다음에는 포장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⁸⁾

대학생들이 비록 군 복무 중이지만 전역 후 자신들과 같은 처지가 될 전·의경들을 '위로하는 마음' 에서 햄버거를 건넸다는 의견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먹지도 못하는 빵' 을 쥐 오히려 모욕감을 준 것이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한대련

2) "한대련 활동 회비는?" 논란 재점화, KUBS, 2009.4.6.

3) '통진당키즈' 꼬리표에 고인 값은 '한대련', 시사저널, 2012.5.23.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11>

4) 통합진보 폭력학생, 어느 대학 다니나 했더니..., 서울신문, 2012.5.14.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4500002&cp=seoul>

5) '한대표가 한대련에 묻는다, 한국대학생포럼, 2012.5.15

6) 진보당 당권과의 돈줄 CNP에 누가 일감 몰아줬나, 조선일보, 2012.5.14.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06100002&ctcd=C01>

7) 올해 문과대,정경대,사범대 학생회 새터 업체 또한 CNP였다.

8) 경찰, '김제동 햄버거' 끝내 거절한 이유, 한겨레뉴스, 2011.06.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1960.html

이 250만원 중 햄버거를 구매하고 남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한대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남은 돈을 전·의경에게 기부할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햄버거 하나로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나 싶었지만 전경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받아줘, 받아줘”를 외쳤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전경을 대신 오히려 내가 침을 대신 삼켰다.

그런데 그 녀석...



햄버거를 전경을 입에 갖다 든다.

“아, 이게 안 먹고 뭐 P까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햄버거의 위치에 찬물을 끼얹는, 분명한 조롱이었다.

③ 성명으로 본 한대련

김정일 서거 조의 성명⁹⁾

[성명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 화해와 공존이라는 세기사적 흐름에 맞게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동반자인 북의 최고 지도자이자,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 6.15/10.4선언의 선언자인 김 위원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학생들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1.12.23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한대련은

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대련은 방북 조문단을 모집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표단과 조문단의 방북을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실정법 위반¹⁰⁾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자 결국 방북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명서에 인권 탄압을 한 독재자에게 극존칭인 '서거'와 '조의'라는 표현을 한 것과 직접 북한에 방문해 조의하려 했던 것은 전국 대학생들의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가 행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서해 군사훈련 중단 요구 성명¹¹⁾

[성명]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는 국민이 없다. 전쟁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쟁을 막자는 목소리는 모두 친북으로 매도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 진정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목소리는 묵살됐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전쟁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연평도의 주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 포격을 한 북한도 증오스럽지만 전쟁을 하자는 현 정부는 더 증오스럽다는 연평도 주민의 말을 되새겨 볼 때이다. 전쟁을 하자는 현 정부에게 연평도 주민은 국민이 아니고 총알받이란 말인가?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힘없는 민중들이고 아이들이며 여성이다.

보수 일간지에서는 이번 훈련을 포기하면 서해상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쟁선동을 하고 있다. 서해상이 분쟁지역화 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 하나의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긴장이 지속되는 화약고가 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죽고 삶의 터전은 파괴됐다. 중동지역이 그렇고 발칸반도가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의 포사격 훈련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불량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위험 천만한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남과 북 모두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더욱 강력히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며 독재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때 정부가 12월18~21일 연평도 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훈련이라는 의견과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훈련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한대련도 2010년 12월20일 이에 대해 당장 훈련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 또한 모든 대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성명이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0년 12월21일 발표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¹²⁾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이

9) 현재 한대련 홈페이지에서는 성명 글이 삭제되었다.

10) 한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단 추진...검·경 단호 대처 2011.12.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227000359&md=20111227104834_C

11)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한대련, 2010.12.20.
http://www.upschool.net/xe/150507

12) 국민 66.6% 연평도 사격훈련 '찬성', 뉴시스, 2010.12.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0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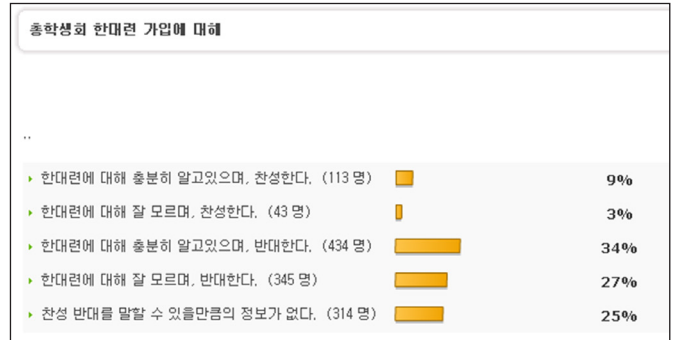
66.6%로 '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26.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대학생들의 주 연령대인 20대의 경우 사격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모든 연령대 통틀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북한 의 도발을 자제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한대련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결

위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한대련은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로 대표되는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대학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대학들이 올해 이례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한대련의 활동으로 등록금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 이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했던 것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라기에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대련이라는 단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대련에 가입할 당시 총학생회와 고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이하였다. 안암총학 자체에서 한 설문에서 답변자의 85%가 대학생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66%가 한대련 가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고대신문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77%가 총학의 한대련 가입제안 자체를 몰랐고, 20%는 가입에 반대했다. 오직 3%만이 가입에 찬성했다.¹⁴⁾

한대련 가입에 대한 고대학우들의 부정적 의견은 가입당시 고파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입 당시 학우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2010년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공약

2010년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아무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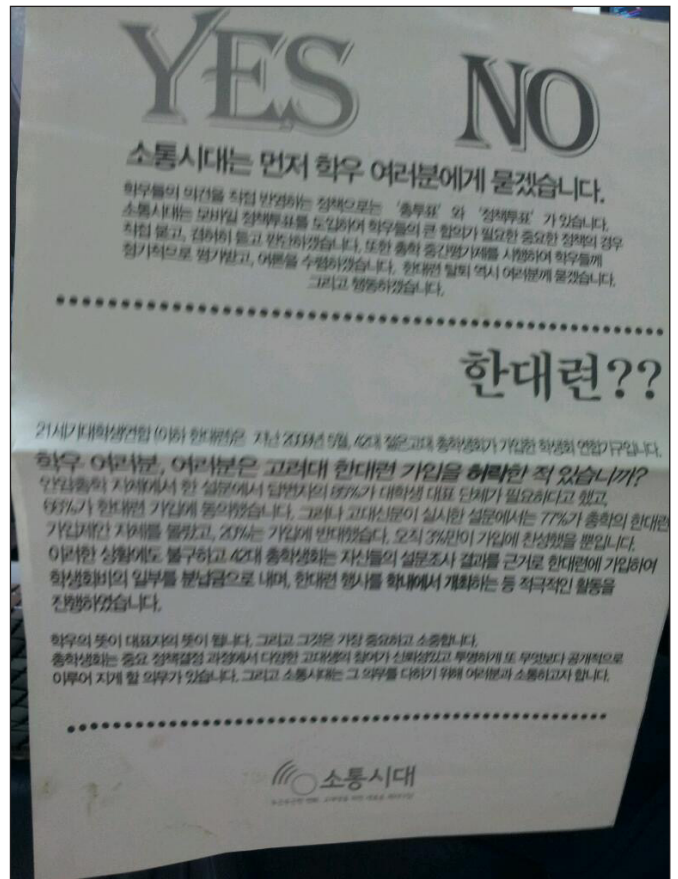
고대에서의 한대련

개론

지난 2009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에 가입하였다. 이후 2010년 총학생회가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시행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으나,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 총학생회는 다시 한대련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청년실업, 반값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한대련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2011년 총학생회가 한대련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쓰면서 정작 학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¹³⁾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 문제에 대해 학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2012년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다. 이 책자도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를 앞두고 학우들에게 한대련이 어떤 단체인지 알리고 투표 자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2009년 총학생회의 한대련 가입

지난 2009년 4월 4일, 고려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는 전학대회를 통해 한대련 가입을 인준받았다. 그러나 2009년 4월 11일 KUBS 기사에 따르면, 당시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의견을 가지는 학우들이 매우 많았으며, 정확한 표본을 공급해 하는 학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 한대련 가입 전학대회 인준 이전에 재학생 100명의 설문 결과 52명의 학우들이



13) '너무' 가까워 보이는 총학과 한대련, 고대신문, 2011.4.3
14) 설문조사, 믿을 수 없다, 고대신문, 2009.4.7

2011년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

지난 2011년 총학생회는 한대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고려대 학생들과 권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대련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이 고려대 학생들의 권익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고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그 예로, 2011년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와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새내기콘서트를 중앙광장에서 개최하기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도하여 빈축을 샀으며¹⁵⁾ 같은 년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한대련 의장 출마를 시도하려다 전학대회 부결로 무산된 바 있다.

누구를 위한 새내기콘서트, 누구를 위한 총학생회입니까?

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대학문화연대가 주최하는 4.2 새내기콘서트의 진행과정이 일축폭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족고대의 상징과도 같은 중앙광장에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상처를 고려대학교 학우들에게 남긴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약 1달간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중앙광장에서 새내기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중운위원들은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중앙광장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또한 안전상 우려를 근거로 끊임없이 중앙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시행착오 끝에 중운위는 최종적으로 중앙광장 개최를 과반수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새내기콘서트 중앙광장 개최 건은 임시중운위에서 재상정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중운위원들은 중운위의 의사결정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총학생회장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총학생회장단은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위 안전이 정당한 대의체계를 통해 통과된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운위원들의 반론 근거 중 하나는 중앙광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교내 여러 곳에 대체할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 측은 알아보겠다, 장소가 협소하다, 대관료가 비싸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중앙광장 개최에 힘을 실어려 하였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운위원들은 총학생회장단의 행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논란이 과열된 오늘 고대신문에서 발표한 소식에 대표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미 2월 말 학생처 측에 중앙광장 사용을 문의한 바 있었고 당시 학생처는 사용을 불허하며 녹지 운동장 및 민주광장 등 대체 공간을 찾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녹지 운동장을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3월 초 처음 이 안전이 중운위에 제출되었을 때 총학생회장단은 녹지 운동장이 국제대학원측에 이미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녹지 사용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중운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동이 민족고대 학생사회에, 특히 대표자들의 모임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감동을 야기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동시에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학생회, 총학생회라면 그 존재 의미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1. 4.2새내기콘서트를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2. 고려대 학생사회 전체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제44대 총학생회장단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3. 앞으로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외부 단체로 인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영향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4. 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국제학부 10대 학생회장 이태원, 간호대학 13대 학생회장 김수진,
정보통신대학 10대 학생회장 구동현, 의과대학 의과과 26대 학생회장 구동보,
자유전공학부 3대 학생회장 송지훈, 보건경과대학 5대 학생회장 이창현,
생명과과학대학 44대 학생회장 조광희

[공지] 4.2 새내기콘서트 조직위원회 가입 제안서 조회 수 346 승인 수 0 2011.03.07 09:00:18

<한대련> *152.152.200 <http://www.upghs.com/nae/152030>

4.2 새내기 콘서트 조직위원회 제안서

수신 : 00대학 총학생회
발신 : 21c 한국대학생연합
별첨 : 2011 새내기 콘서트 행사기획안

한대련 소개
공지사항
활동보고
계시판
자료실

귀 단체의 조직위원회 가입을 요청합니다!

1. 행사 취지

우리사회에서 대학생의 모습은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취직에 대한 걱정으로 입학하자마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도서관도 갑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세대들이 20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도서관이 새내기들의 전부일까요? 대학에 입학한 새나기들은 자신의 꿈에 대한 나름의 포부와 성인으로서는 대학생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청년은 다른 세대의 롤모델이었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나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기발랄함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의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소비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생들 스스로의 문화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나기를 스스로 즐겨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나기 콘서트는 이제까지 세상에 없었던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학의 새나기들이 1만 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만으로 감동할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긍지를 심어줍니다!

2. 행사 개요

- 명칭 : 2011 새내기 콘서트
- 일시 : 2011년 4월 2일 토요일 6시 (무대행사는 오후4시부터)
- 장소 :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 참가 대상 : 대학 1학년 새나기 & 대학생 1만명
- 주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문화연대
- 주관 : 2011 새내기 콘서트 준비위원회

한대련 소개
공지사항
활동보고
계시판

15) 조우리 44대 총학생회장은 새내기콘서트 장소를 중광으로 확정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첨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한대련에 새나기콘서트 장소를 중앙광장으로 확정지어 보고해 나중에 이를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고대학우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3. 준비 일정

- 3월1주 : 본행사/부대행사 기획 완료, 홍보기획 완료, 1차 포스터/티켓 제작, 장소 선정
- 3월2주 : 대학생 공연 모집 시작, 1차 포스터/영상 배포, 외부 선의 완료, 주최단위 추가확대, 후원 조직
- 3월3주 : 대학생 공연 준비 과정, 2차 포스터/영상 제작, 언론 노출, 1차 새나기 투어단
- 3월4주 : 대학생 공연 확정, 언론 노출, 2차 포스터/영상 배포, 2차 새나기 투어단
- 3월5주 : 행사 준비 마무리, 최종 홍보, 조직화 마무리

4. 권리와 의무

조직위원회에 가입하게 되면 홍보지에 주최단체로 등재됩니다. 그리고 행사준비와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1년 3월 27일 22:55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스터를 포함한 리플렛, 현수막, 참가자 명 등 모든 홍보물에 "중앙광장" 홍보가 될 바는 없습니다.

00..

또한, 총학생회실과 학생회관 사용에 있어 한대련 간부들의 거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우선권이 제한되었고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¹⁶⁾

2011 한국대학생연합

박원순 서울시장당선!

한대련과의 정책협약으로

대학생교통비할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실현됩니다!

지난 10월 20일 한대련, 서울대연을 비롯 대학생 단체들의 제안으로 박원순선생님은 반값등록금 반값생활비 실현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대학생정책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정책협약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및 장학금확충
- ▲사회적 일자리 지원 확대 ▲청년멘터지기금 1만개 육성 ▲대학생 임대주택 대책 실행
- ▲대학생 교통비 할인 · 주거비 대책 마련 ▲서울시 산하 학생복지증진위원회 설치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의 반값등록금, 반값생활비가 실현될때까지 한대련이 앞장서겠습니다!

44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한편, 2011년 총학생회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한대련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 고려대 학우들의 여론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

2012년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를 위한 움직임

고대에서 한대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근 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45대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를 제1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다. 그만큼 한대련에 대한 재평가와 고려대 총학생회가

16)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상정 제안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탈퇴의 건 -, 임용수, 2011.4.8

한대련 가입 단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가 확정된 이후 설문조사, 토론회, 대자보를 통해 한 대련에 대해 홍보하였고, 이 책자 또한 한대련 탈퇴 투표 공약 이행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4

한대련 탈퇴 찬성 근거

한대련의 고대 학생사회 기여 문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한대련 소속단체로서 한대련 활동을 하는 것이 고려대 학생들의 권익 및 의견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2009년 한대련에 가입하여 2009년, 2011년에 집중적으로 한대련 활동을 했다. 2009년, 2011년 총학생회는 청년실업, 반값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한대련과 연대하여 대응하였지만, 반MB, 한미FTA반대 주장 등의 정치운동과 한대련과의 관계 및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해 학생복지증진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⁷⁾ 또한 2011년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와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 새내기콘서트를 중앙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도하여 빈축을 샀으며¹⁸⁾ 같은 해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한대련 의장 출마를 시도하려다 전학대회 부결로 무산된 바 있다.

즉,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이 학우들의 권익 및 의견과 부딪히는 지점이 수차례 있었으며,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을 계속 한다면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 가치와 원칙이 한대련이라는 단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대련의 대표성 문제

한대련은 300만 대학생, 200여개 대학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을 표방하고 있지만 좌편향적 이념 때문에 특정 정파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며 운영하고 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학교와의 연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한대련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진정한 연대를 위해서는 종파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두루 연대가 필요하나 지금 한대련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¹⁹⁾

또한, 한대련 가입대학은 20여개²⁰⁾ 로 가입 대학의 수가 전국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시점에서 고려대학교가 굳이 대표성을 잃고 편향성을 띤 한대련에

남아 그들의 활동에 고려대학교의 명의를 빌려 줄 필요가 없다. 한대련 가입 대학으로서 대학생 공동의 문제와 상관없는 한대련의 활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상황이 비슷한 대학들과 연합하여 대학생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효성도 있을 것이다. 45대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학우, 더 나아가 모든 대학생들을 위해 한대련 및 기타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이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가입과 탈퇴에 별다른 절차가 없는 전국총학생회모임에 주기적으로 참가하여 대학생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한대련의 대학사회 기여 문제

한대련의 활동이 반값등록금 운동을 통한 등록금 인하와 같이 대학생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대련 활동은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반MB, 반FTA 시위나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행동에 치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대학생 문제에 소홀하였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는 한대련의 구조적 한계²¹⁾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대련은 대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기성정치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한대련의 주축세력은 한대련의 전신격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경기동부지구총련 소속 학생이었다. 이들은 한총련의 힘이 약해지고 학생운동 주도세력이 한대련으로 전환되던 2007년을 즈음하여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한대련의 주요직을 장악하였다.²²⁾ 문제는 이들이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로 불리는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은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다. 이들의 측면지원을 통해 당선된 학생회 간부와 그 구성원들은 한대련의 주요직을 차지함과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의 구성원이 되었다.²³⁾

이렇게 '지도된' 한대련 소속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대련 출신 청년비례대표 김재연 의원이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여 의원직 사퇴요구를 받자 지난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단상을 점거하고 유시민, 조준호 공동대표를 폭행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저질렀다. 이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몰고 왔으며 대중들에게 청년정치가 순수하고 투명하기는커녕 기성정치세력에 휘말려 민주주의적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만 심어 주었다. 모든 청년정치세력이 이렇지는 않은데 말이다. 이와 같은 한대련의 정치적 활동은 대학사회에 기여는 커녕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MB정부 새누리당 규탄! 한미 FTA 당장 폐기하라!'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서해 포사격

17) '너무' 가까워 보이는 총학과 한대련, 고대신문, 2011.4.3
 18) 조우리 44대 총학생회장은 새내기콘서트 장소를 중광으로 확정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한대련에 새내기콘서트 장소를 중앙광장으로 확정지어 보고해 나중에 이를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고대학우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19)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상정 제안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탈퇴의 건 - 임용수, 2011.4.8.
 20) 2012.06.08 KUBS 토론방송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회, 탈퇴를 묻는다 중 한

대련 관계자 발언
 21) [통합진보, 정당 사상 최악 폭력] "폭력행사 당권파-한대련 긴밀한 연관" <http://news.donga.com/3/all/20120516/46273388/1>
 전대협·한총련 있는 한대련, 대학생 대표조직 맞다.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7498>
 22) 한대련 주류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밀월관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166>
 23) [서울신문] 2012.05.14 통합진보 폭력학생, 어느 대학 다니나 했더니...

훈련을 두고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는 성명²⁴⁾을 발표였다. 등록금 시위에서도 등록금 말고도 다른 구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한대련 강령과 규약에서도 대학생은 진보적이어서 한다는 전제를 두는 등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 하였다. 물론,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 해소라는 대학생공동의 문제를 순수한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한대련에 소속된 총학생회와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은 한대련 내에서 힘이 없으며 한대련을 순수한 연합조직으로 다시 일으키기에는 주요직을 차지하기 힘들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대중들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렸다. 따라서 4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한대련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대학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대련 탈퇴를 주장하는 바이다.



통진당 폭력 사태 당시의 정태호 전 42대 총학생회장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 회의를 저지하는 조우리 전 44대 총학생회장

한대련의 구조적 문제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을 하려면 한대련에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²⁵⁾ 총학생회 예산의 0.8%를 한대련에 내야 하고 북부지구대학생연합에 총학생회 활동비예산의 0.4%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에도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당 200원씩 내야 한다.²⁶⁾ 이처럼 한대련은 운영구조와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대학별 학생회에 의존성이 높다. 한대련을 위한 사업에 대학별 학생회의 회장단 및 집행부를 무리하게 동원하여 일상적인 역량을 소진시키고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개입

27) 하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대련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 고려대학교 중앙운영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반영하려하기 보다는 마치 이미 결정된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한대련 내에서 대학들 간의, 한대련과 고려대학교 간의 평등하고 수평적인 구조가 아닌 상명하복식의 한대련의 구조는 고려대학교가 한대련 활동에 있어서 고려대학교만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한대련의 명령을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가능성을 존재케 한다. 새내기 콘서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그리고 한대련이 주장한 김정일 추모, 서해 해군 훈련 반대, 천안함 사건 때 정부를 의심한 논평, 강정 마을 사태, 해군 기지 반대 등 물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과연 한대련 소속 학교 학생들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한대련은 대의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간선제라는 한계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연 당선자 지키기 문자'²⁸⁾ 사건이라든가 한대련 지도부의 통진당 폭력사태 개입은 토의와 밀접으로 부터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이런 구조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한대련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대련 규약 2장 5조와 2장 6조에 따르면 한대련의 탈퇴는 가입결정을 내렸던 의사결정기구에 준하거나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전학대회나 총회를 통해서만 탈퇴할 수 있다. 기계공학과 장세완(04) 씨는 "탈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단체는 깡패와 통신사 밖에 없으며 탈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단체는 대부분 좋지 못한 단체다. 솔직히 탈퇴는 의도 한대련에 대한 호불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대련 측에서 '우리 생각보다 괜찮은 단체야'고 설득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인 모양새라고 생각한다." 라고 현재 탈퇴가 자유롭게 못한 한대련의 구조 / 제도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다.²⁹⁾ 어떤 연합단체가 존재할 때에 그 단체가 정치적인 수도 있고, 효율성을 위해 하향식의 결정 방식의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대련이 학생회를 바라보는 자세

다음은 한대련의 2012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의 내용이다.

3)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위 활동과 한대련 국회의원 만들기

- 2012년 총대선이 벌어지는 정치의 해. 지난해 반값등록금 쏠불로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치에서 외면받아왔던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청년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에 하버드대 출신 벤처기업CEO 이준석을 선임하고, 대선 후보 문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 20대 손수조 후보를 내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비례선출을 위한 락파티를 통해 2명의 청년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청년회를 대표하는 '청년연대'와 학생회를 대표하는 '한대련'과 공동으로 청년비례선출위원회 위대한 진출을 구성하고 5만여명의 청년선거인단을 모집하여 김재연

24) 한대련 홈페이지 (www.upschool.net)

25) 한대련 규약 시행세칙 4 - 회비, 한대련 규약 2장 8조

26) [KUBS] 2009.07.30 "한대련 활동 회비는?" 논란 재점화

27) 한대련 산하조직인 인권더하기 법률 이라는 단체에서 2011년 법대 보결선거에

개입한 적이 있음.

28) 고려대 세종배우터 총학생회의 '일련의 한대련이 당면한 사태들에 대한 입장' 대자보

29) 2012.06.08 KUBS 토론방송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회, 탈퇴를 묻는다

청년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한대련은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청년비례선출위원회 공동구성을 제안받았고, 대학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정치진출의 필요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한대련 후보 출마와 청년비례선출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 한대련 의장은 청년국회의원 선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가 청년비례선출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으로 규정하고, 청년비례 선출에 참여한 한대련과 5만여 청년선거인단을 부정의 주체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재연 의원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에 앞서서도 진실규명, 제명반대 입장을 통합진보당 의원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대련 확대운영위에서 한대련 공식입장으로 정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평가

- 청년의 정치참여를 통해 청년의 정치의 주인이 되고, 한대련의 대중운동을 원내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최초의 청년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 선출위 참여과정과 김재연의원에 가해지는 부당한 제명압력 속에서 한대련 의장의 입장은 제출되었으나, 한대련 공식 의사결정 단위에서 단일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한대련이 광장에서 만들어낸 반값등록금 이슈가 정치권의 의제화 되어 있는 조건에서 한대련과 야당의 공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이익실현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 당내외의 극심한 혼란으로 진보진영 전체 분열의 양상이 계속 되면서 한대련의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제

1. 한대련 중앙이 상층의 여론사업 뿐 아니라, 대학의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연대연합을 활성화 하여 **학생회 선거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한대련의 기층 조직력을 튼튼히 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학생회 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분출을 위해, 2학기 학내에서 학우들이 주인 되고 학우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대중운동을 반드시 대학별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은 바로 학생회 선거입니다. **당면해서 학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력을 복구하는데 한대련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한대련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만큼 한대련을 공격하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열과 보수진영의 색깔공세를 볼 때 학생사회에서도 하반기 한대련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어느 때보다 세게 불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때일수록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펼쳐야 합니다.

학내에서 일부 특정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공격은 정치적 편향성, 색깔론, 학생회비 문제 등을 통한 도덕성 공격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정치문제와 돈 문제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공세가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되살아난 색깔론인 증북 논란에 대한 교양을 통해 일꾼들의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냅니다. 그리고 한대련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공세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3. 학생회 선거 이후, 대선에서 한대련의 최대 역량을 동원

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상반기 총선국면에서 반값등록금 후보 발표 및 야당과의 반값등록금 1호 법안 협약식 등을 활동을 하였으나, 총선까지 실천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대선에서 한대련의 활동을 극대화 합니다. 정권교체 열망을 담은 시민들이 분출할 수 있는 광장을 한대련이 앞장서서 열고 민중들 속에서 올해 대선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합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한대련은 '정권교체' -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이었으나, 이를 '부당한' 일로 치부한 채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인 김재연 국회의원은 한대련과 통진당의 공조로 만들어진 최악의 결과물이었으나, 한대련은 김재연 지키기 문자 메시지를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기성정치의 권력을 위한 단체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상황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대련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

1학기 한대련 탈퇴 투표를 추진하던 중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의)에서는 우리 학우들이 한대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2학기 시행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한대련을 탈퇴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 볼 수 있다. 학우들이 한대련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당해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 거부 의사를 표명한 마당에 왜 한대련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단체는 하루바삐 탈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학우들이 한대련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른 채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이름을 함부로 일개 단체에 맡기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한대련 가입 / 활동단위에 대한 의문

현재 한대련에서 활동하는 총학생회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10여개의 총학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대련 집행위원장은 지난 한대련 탈퇴 토론회에서 20여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대련측에서 명확한 활동단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대련 집행위원장조차 정확한 활동단위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전국구' 연합체로의 활동을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대련은 현재 직접 전화하여 활동 총학생회를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제대로 된 총학생회 연대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많은 수의 총학이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대련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 학우들에 대한 한대련 간부들의 폭언

다음 자료는 고파스에서 한대련 간부들에 의해 고려대 학우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는다는 글의 제보들이다. 이 외에도 다수 사례가 있으며, 총학생회가 가입한 외부 단체의 간부가 고려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그것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대련 집행부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피해입으신분들 사례를 찾습니다.

· 분류: 가벼운글 · 등록일: 2012-06-04 22:47 · 조회수: 1797 · 추천수: 2
 · 글쓴이: **고평**
 · 링크: <http://m.koreapas.net>

이 게시물에 공감하신 분들 (2명)
 화하하하하 , LUMIA710

작년 새내기콘서트 진행당시 한대련쪽과 트러블있었던 분들 말씀부탁드려요



[리플6] 보해미평 2012-06-04 23:03:06

3/ 띠끌 님은 크게 모욕을 당했죠 견군, Eten님도 그렇고

She,F님 도 당했나...



[리플7] 보해미평 2012-06-04 23:03:30

또 누구있지.



[리플19] SHE.F. 2012-06-04 23:45:08

18/ 해당간부 징계 및 사과로 귀결되어야 할 사안인데 총학에서 나서서 해당간부 실드를 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해당간부의 지위가 고대총학보다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대련탈퇴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리플20] 화하하하하 2012-06-04 23:46:53

고평님 쪽지 보냈어요.

여기다 쓸 일은 아닌것 같아서 쪽지로 보냅니다.

[리플21] SHE.F. 2012-06-04 23:47:19

조우리는 해당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는 요구에, 그럴 수 없다며 거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인 학생이 요구하는데, 학생을 감싸야 할 총학에서 가해자의 의견에 따라 이름을 밝히고 안밝히고 하는게?

[리플23] 아이안센나 2012-06-04 23:51:57

19/ 유명했죠 이 일은.. 총학생회가 아니라 한대련 지부

[리플26] SHE.F. 2012-06-04 23:53:47

22/ 해당인이 잘못된 거고, 조우리가 더 옳은 겁니다. 조우리만의 잘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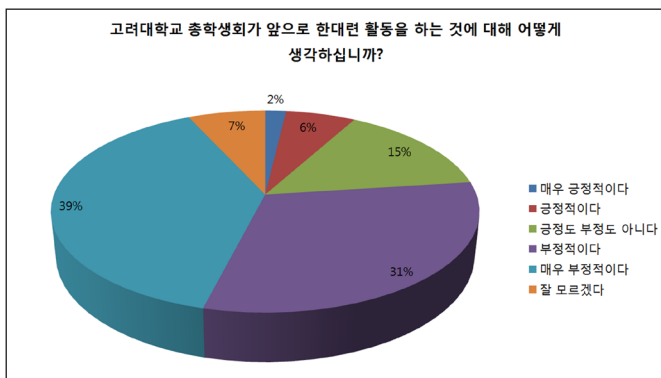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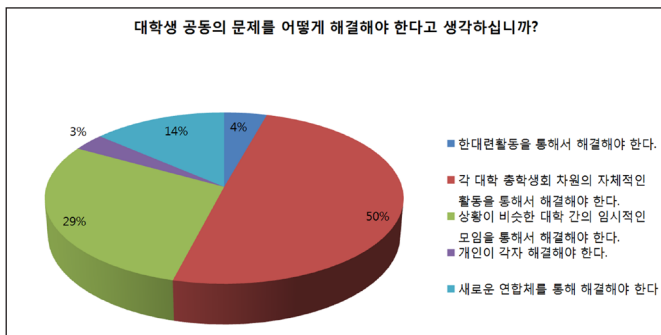
[리플30] SHE.F. 2012-06-04 23:59:04

29/ 한대련 간부의 문제인데 그것이 조우리의 문제로 번진 것이 바로 한대련의 수직적 구조라는 단체의 성격때문입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했는데요, 지위 구조가 문제이고 그것이 드러난 한 예를 어찌 딱 그사람만의 잘못으로 못박습니까?

저도 새내기콘서트때 항의하러 갔는데 나중에 기사보니 대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으로 포장해서 적어놨더군요, 저희 사진찍어가길래 왜 찍으시냐고 지워달라니까 연락한 여자에게 무슨짓이냐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나참 그래놓고 사진은 버젓이 지네 사이트에 과한이라고 올려놨데요 ㄹ 학우라고 밝혔고 학우들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는게 옳은일이냐고 따졌다가 별일 다당했었음..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학우들의 의견이다. 아래 그래프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1학기 말 644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결과 한대련을 통해서 대학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학우의 비율은 4%밖에 되지 않았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한대련 탈퇴를 원한다면 탈퇴를 하는 것이 대의기구로서의 의무이다. 고대공감대는 한대련 탈퇴를 제1공약으로 걸고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선본의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이자 핵심공약인 제1공약을 한대련 탈퇴로 걸고 당선된 고대공감대 선본과 그런 선본을 믿고 표를 준 학우들의 뜻은 한대련 탈퇴로 일치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혹자의 '한대련 탈퇴가 졸속행정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수렴하여 1학기 정책투표를 2학기미루고 학우들에게 설문조사, 자료집, 토론회 등을 통해 한대련이 무엇인지 왜 탈퇴를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 탈퇴는 등록금 인하 투쟁에 대한 포기선언입니다.

고려대학교 제45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김형남(정치외교학과 09)

1. 한국대학생연합 탈퇴 논쟁에 앞서 : 고대공감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철수량 영회랑 찰떡 한계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려면 둘이 공평하게 떡을 갈라먹던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다 주던지, 게임을 시켜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던지 어찌되었던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면 현명한 방법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테니까 해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던 그건 판단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표방하고 당선된 제45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한대련의 정치적 편향성'을 탈퇴 논쟁의 핵심 구호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대련이 진보적 성향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의사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과 사회 현안들에 대한 한대련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진보적 방향성을 지니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대련에서 활동하는 총학생회들이 대개 진보적 가치를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진보적인 방향성, 대정부 투쟁을 통한 반값등록금 쟁취 등이 학생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때문에 한대련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탈퇴 논쟁에서 고대공감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반값등록금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에 있어서 격한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외에서 벌어지는 민감한 정치사안에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하는 고대공감대식 학생회 운영의 방향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고대공감대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탈퇴논쟁은 한대련과 고대공감대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공감대가 스스로를 중립이라 표방하고 한대련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선전하는 것은 학우들을 상대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왜곡입니다.

고대공감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대련이 진보적 성향을 갖기 때문에 불편한 학우들의 생각을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총학생회는 한대련을 탈퇴한 뒤에 탈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학우들의 불만은 어떻게 포괄할 계획입니까?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각 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대련 탈퇴 논쟁을 올바르게 진행하자면 총학생회의 주장대로 중립과 편향의 잣대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탈퇴와 가입유지중에 어떤 것이 대학생 문제 해결에 발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대련 탈퇴논쟁은 방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와 비정치의 문제가 아님을 탈퇴 반대 주장에 앞서 학우들께 호소드립니다.

2. 한대련은 이런 단체입니다.

1) 한대련의 성격

한대련은 한국대학생연합의 준말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학생회 연합기구입니다. 가입과 탈퇴는 학생회의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대련은 2005년 살인적인 등록금, 대학생 주거, 생활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대학생 문제에 대해 개별 대학 총학생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합니다. 과학생회가 먼저 단과대학생회를 구성하고 단과대학생회가 먼저 총학생회를 구성하듯 각 학교 총학생회가 먼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한대련은 대학생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써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회 현안들에 대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를 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려운 곳, 힘든 곳에 연대투쟁, 봉사, 연대활동(농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한대련의 성과

한대련이 출범한 2005년은 한창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오르던 때입니다. IMF 이후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던 시기에 한대련은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 반대'가 아닌 '등록금 인하'를 구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등록금 인하는 허황된 소리라 비판 받았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한대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 그러나 이후 5년여간 꾸준히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학우들의 힘을 모아온 결과 한대련 활동은 2010년부터 성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대련은 등록금 인하와 동시에 비싼 이자를 받는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는 2010년 한대련이 주장해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과 학자금 이자 지원/면제 제도 도입**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정부를 상대로 얻어낸 등록금 문제 해결의 첫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 해결의 흐름은 2011년 전사회적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7년부터 한대련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반값등록금 정책은 2011년 한대련과 각 대학 총학생회가 만들어낸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됨은 물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선거를 앞둔 각 정당

주요 정책으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대련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이후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뒤 실제 약속한 바에 따라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는 실제적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국 각 국공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검토하게 되었고 반값등록금 투쟁의 여파로 2012년 등록금정책 당시 역사상 처음으로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직 문제가 많지만 **국가장학금 제도가 정비되는** 등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아직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대련의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협의한 결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진보당 등과의 협약에 성공,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시킬 당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게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전국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현실화될 때까지 대정부투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등록금 문제가 점점 해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대련이라는 연합체를 중심으로 각 대학 학생회들이 학우들의 힘을 모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쟁과 요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마련에 나선 결과 공허한 외침을 넘어서 실질적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대련은 등록금문제 이외에도 각 대학의 **비리재단 퇴출 문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해결,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 등 대학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학생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반값생활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고려대학교의 한대련 가입

고려대학교는 2009년 42대 총학생회 당시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한대련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단위로 활동한 것은 2009년 당시와 2011년 44대 총학생회이며 2010년 43대 총학생회와 현재 2012년 45대 총학생회는 한대련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3. 한대련 탈퇴는 등록금 인하 투쟁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학생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IMF 이후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되면서 10년 남짓한 사이에 2, 3배가 경증 뛰었습니다. 가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고등학생 열명 중 8, 9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구조 속에서 연간 천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전 국민적인 골칫거리입니다.

한대련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오늘의 한대련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여러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가능성을 만들어 냈고 그 가능성은 각 종 제도의 도입과 반값등록금의 실현으로 눈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생각에 전전긍긍합니다. 국민적 분위기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깎아놓고 생색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이라는 허술한 제도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요구를 무마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면학장학금 지급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액수가 적어지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와 타협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순 없습니다. 꿈쩍도 않던 정부와 학교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총학생회장 몇명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던 일도 아니고 총학생회장과 학교 관계자가 만나 악수 몇번 하고 학교 생활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비상총회를 열고, 교육투쟁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에 못이긴 정부와 학교가 한발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싸워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대련은 이러한 힘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대련 탈퇴는 고려대 학생사회가 이러한 '등록금 인하 투쟁'의 국면에서 한 발 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에 따른 등록금 투쟁의 향방은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바라봐야 합니다.**

외부단체와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던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전학대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모임이란 곳에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의장, 집행부의 체계가 없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학교 총학생회들이 모여서 간판을 걸고 활동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초 고대공감대에서 한대련 탈퇴 이후의 대안체계를 모색해보겠다고 했고 그 대안으로 이러한 모임을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상 학내에서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인준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지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힘을 합친다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체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1년 간 등록금 투쟁에 임하며 보여주었던 태도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한 성원으로써 책임을 나누고 통감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이 제시한 전국 꼴지 수준의 등록금 2% 인하안을 보고 말도 안된다며 5% 이상의 인하를 요구하는 중운위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파도보다는 합의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했던 총학생회입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4.11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주요공약으로 세워야한다고 이야기하던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선한 총학

생회장단 만찬회에 가서 대학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던 총학생회입니다.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재단 문제가 불거지고 학교에 돈이 없다는 말이 공색한 변명임이 드러났을 때도 재단 이사장 퇴진에 만족하며 학우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재개최 요구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총학생회입니다. 학교가 2% 인하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확충이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유야무야 지나가버린 총학생회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총학생회에 등심위를 열자고 이야기하면, 한번 더 재단문제를 더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뭔가 바뀌는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총학생회가 돌아다니며 모아온 단체가 한대련의 대안이라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미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총학생회에 더 이상 등록금 문제 해결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대련의 조직문화가 경직되어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서툴고 실제 활동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한계 역시 사실입니다. 한대련은 연합체입니다. 단일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상존하고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으며 대학생들의 조직이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 실제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이에 실망한 바가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을 실망했었고 한대련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무엇이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의 과도한 짐을 덜게 하는 길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써 등록금 문제와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연대체라면 그 연대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탈퇴가 아닌 참여로, 방관이 아닌 적극적 문제제기로 한대련을 통한 대학생 문제 해결에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한대련 탈퇴 논쟁의 핵심은 '선과 악' 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 한대련 탈퇴에 찬성하는 사람과 한대련 탈퇴를 반대하는 사람 간에 의견이 다른 것 뿐입니다. 한 학기의 경험을 통해 현 총학생회의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게된 지금, 이제 탈퇴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우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한대련 탈퇴 논의에는 과정 상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한대련 탈퇴 논의는 지난 6월에 진행 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책투표 후 전학대회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당초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한대련 탈퇴 총투표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성사되며 그 자체로 탈퇴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에서는 50% 투표율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책투표 후 전학대회 결정으로 방법을 바꿀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정책투표는 10%의 학생들만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가 성사됩니다. 때문에 결과가 대의체계 속에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총학생회의 정책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되는 투표입니다. 총학생회는 정책투표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판단하여 한대련 탈퇴에 대해 결론을 내자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회의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방식입니다.

전학대회 대의원은 과학생회장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전학대회는 회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자기 과, 자기 단과대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와서 찬, 반을 표명하는 회의입니다.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 기반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책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대의원들은 자기 과, 단과대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앞서 정책투표 결과를 의식하여 찬반투표에 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의사결정 과정 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총학생회에서 총투표가 아닌 정책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는 이유가 총투표 투표율 50%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라면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도 되지 않는 정책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체계인 전학대회의 결정이 왜곡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책투표 투표율이 20%, 혹은 30%가 나온다면 이는 과대표된 정책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대표되는 학우들의 의사가 심리적 부담감에 의해 축소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총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대련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한대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건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는 당황스러운 논리를 제기하거나, 투표 이름을 한대련 탈퇴가 아니라 한대련 가입유지로 진행한다면 찬성은 가입유지고 반대는 탈퇴희망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탈퇴희망에 해당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내 대의민주체제는 엄정하고 올바르게 지켜져야 하며 학우들의 의사는 왜곡없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중 똑딱 넘기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탈퇴 투표가 처리된다면 탈퇴가 되건 안되건 이후에 투표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우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던지, 대의원들의 의사수렴 활동기간을 충분히 주고 전학대회만을 개최하던지 둘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정상적인 탈퇴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정책투표 후 전

학대회는 학내 민주주의 체계를 교란시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별첨2] 올바른 논쟁을 위해선 한대련에 덧씌워진 오해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대련 탈퇴 논쟁은 고려대 학생사회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건전하게 진행하기에 앞서 한대련에 대한 과도한 흑색비방,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카더라식의 주장이 학내에 많아 향후 탈퇴 논의가 이성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한대련에 덧씌워진 오해와 편견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1) 한대련이 우리 학생회비의 상당량을 쟁거가고 있다?

한대련은 규약 상 가입단위 학생회의 학생회비 중 일부를 받아 운영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학내에는 현재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한대련에 납부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한대련 규약 상 고려대학교가 한대련에 납부하는 운영기금은 30만원 안팎이며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 대학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대련이 활동하는 기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기금은 활동의사를 밝힌 학교만 납부하는 자발적 납부방식이며 현 총학생회와 같이 활동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한대련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치며 한대련이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2중대, 혹은 통합진보당 소속 학생단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한대련은 통합진보당 소속이 아닙니다. 한대련은 대학생 문제와 관련한 정책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정책요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대련이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러한 정책 요구에 응하는 정당이 이러한 정당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려는 정당과 대학생 연합체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3) 한대련은 등록금 인하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다?

한대련이 스스로 주최하는 등록금 인하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가령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등록금 인하 집회에 연대하러 온 다른 단체의 사람들이 자기 단체 이야기를 하며 다른 주제의 발언을 곁들일 수는 있겠으나 등록금 인하를 구실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미투쟁으로 집회의 성격을 바꾼다면 하는 인터넷 상의 소문은 근거없는 비방입니다.

간혹 MB OUT 등의 구호를 등록금 인하 집회에서 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반정부투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정부 정책과 학교 당국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투쟁과 요구의 대상은 '정부'와 '대학 본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년째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역시 스스로 공약하였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MB OUT이라는 구호가 출현한 것입니다.

6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이상에서 한대련이 어떤 단체인지, 고려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려대에서 한대련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총학생회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조사와 검토, 홍보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45대 총학생회는 가입 당시와 달리 토론회, 대자보 홍보, 자료집 발간, 정책투표를 거쳐 한대련 탈퇴를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한대련 재가입 논의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우선 한대련에 소속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고려대 총학생회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더라도 학우들이 그 단체가 하는 활동, 단체가 고려대 학생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를 계기로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는 중운위에서 의결된 대로 9월 둘째주에 진행될 것이다. 내가 회원으로 속한 총학생회가 한대련에 가입된 상태로 활동을 해도 좋을지, 그 반대일지는 오로지 학우들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그 선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대련

파헤치기

발간

제 4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원고 작성

총학생회장 박종찬 (식품자원경제학과 00)

총학생회 정책국

국장 차오름 (독어독문학과 10)

국원 조찬혁 (국제어문학부 12)

국원 양정혁 (국제어문학부 12)

정경대학 학생회장 김형남 (정치외교학과 09)

- 5. 한대련 탈퇴 반대 의견 작성

편집.제작

총학생회 디자인팀

상임고문 최남희 (건축학과 04)



고려대학교 제45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